

호남에 비구니 전통강원 첫 설립

화순 유마사, 내년 3월 개강... 외국어·포교 교육

호남 최초의 비구니 전통 강원인 유마사 승가대학이 설립됐다.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는 강의실과 도서관, 향당(교수실), 육화료(큰방) 등 승가대학 시설 일체를 갖추고 2007학년도 신입생모집에 들어갔다. 내년 3월에 개학하는 유마사 승가대학은 기본교과목에 외국어와 인터넷을 강화해 시대에 앞서가는 승가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마사는 세계화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와 전남대학교 교수진을 초빙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공개이불 공사를 마쳐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송광사 올원과 연계해 계학 강좌를 강화하는 것도 유마사 승가대의 자랑. 주지 일장 스님은 "승가대학은 4년의 교육과 수행을 통해 홀로설 수 있는 수행

자의 자질을 키우는 도량"이라며 "필수 과목은 물론 여학과 포교, 복지 교육을 통해 광도중생하는데 소홀한 없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유마사 승가대학은 2000년 일장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본사인 송광사와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7년에 걸친 불사 끝에 이뤄지게 됐다. 폐사나 다름없던 유마사가 복원되고 승가대학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도 사명초등학교 동문회(회장 박영웅)를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건립불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삼선포교원), 경기(봉녕사), 충청(동학사), 영남(운문사, 청암사)에 이어 호남에서도 비구니 전문교육이 시작될 것이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도 "송광사 관내에 비구니 강원 설립됨에 따라 송광



강의실과 도서관 등을 갖춘 육화료.

사가 명실상부한 승보종찰로 거듭나게 됐다"며 "최첨단 교육시설과 현대화된 교육과정으로 승가교육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유마사는 백제 무왕 28년(627)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뒤 50년 가까이 퇴락되어 있었으나, 일장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해연부도(보물 1116호) 정비와 전각복원, 승가대 건립으로 도량을 일신했다. (061) 374-0050

Interview 주지 일장 스님

“폭넓은 교양 갖춘 수행자 양성할 것”

첨단 시설·교과과정 마련

“폐사된 천년고찰을 복원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보다 천년 앞을 내다보는 인재양성은 더 훌륭한 불사입니다” 유마사에 호남 최초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한 주지 일장 스님(사진)은 “수행자는 교학은 물론 21세기가 요구하는 폭넓은 교양이 요구된다”며 “현대에 맞는 수행과 포교를 이룰 인재양성을 위해 첨

단 교육시설과 교과과정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일장 스님은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수행과 포교를 하는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 승가대학 설립을 발원했다”고



이준엽 기자

회고했다. 이러한 스님의 원력으로 전력이 약해 전기제품 사용마저 용이하지 않은 심신산골에 광케이블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승가대학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스님은 “화순에 전통 승가대학이 들어서면 지역도 함께 발전되고, 열악한 지역 불교세를 모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장 스님은 1978년 흥인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 1980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85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와 1990년 일본 동경 입정(立正)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97년 입정대 문화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화순 전남대 병원 법당 법사를 맡고 있다.

광주전남생명나눔 모금행사



11월 12일 무등산 원효사 앞에서 열린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모금행사 모습.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는 11월 12일 무등산 원효사 앞 '절로 가는 길'에서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펼쳤다. 원효사 신도회가 주최한 이날 모금행사는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나눔 국수, 나눔 차 등 먹거리 식당 운영과 현결증서 모으기, 문화공연 등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모금행사 수익금과 '절로 가는 길' 매출금 등 230여만원의 화순전남대 병원에서 투병중인 백혈병 환우들의 치료비로 전달한다.(062) 234-6602 이준엽 기자

진흥원, 충주서 청정운동 법회

대한불교진흥원이 국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운동 순회법회가 충주에서 11월 13일 열렸다. 법회에는 성기태 전 충주대 총장 등 지역 불교계 지도자와 파라마타청소년협회, 군부대 장병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법사로 나선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남이 또다른 자기이므로 스스로 청정한 것이 이웃의 청정을 가져오고 이웃의 청정이 곧 나의 청정을 가져 온다”며 청정운동의 소중함을 설교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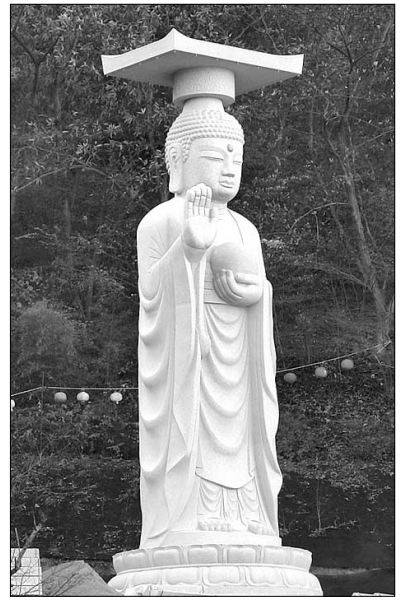
호남 최대 미륵석불 점안

담양 용화사, 높이 15m... 평화통일 발원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조 미륵대불이 조성됐다.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목담유물관 뒤편에 미륵대불을 조성하고 11월 26일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2003년부터 3000일 기도를 진행해 오고 있는 주지 수진 스님은 “삼국 통일 후 진표유물사가 금산사, 법주사에 미륵불을 조성해 민족화합을 기원했다”며 “선대 조사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통합 경제부흥 남북통일을 기원하고자 미륵대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용화사 미륵불은 가로 5m, 높이 15m 규모의 석조 대불로 통합중단 중정을 역임한 목담 스님의 원불인 미륵불을 원형으로 조

성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는 호서지역에 법주사 미륵대불, 영남 용화사 약사대불, 영동 낙산사 해수관음에 이어 담양 용화사 미륵대불이 호남을 대표하게 됐다. 목담 스님 원불은 한국전쟁 당시 목담 스님과 불자들이 서울 선학원에서 49일간 기도하던 중 많은 이적을 보인 미륵불로, 용화사 목담 유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용화사는 이날 미륵대불 점안을 기념해 목담 스님 원불인 미륵불, 보물 제 737호 <불조역대통재>, 백파 스님의 <금강팔해경> 등 목담 스님 유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한편 용화사는 미륵불 점안식 이어 국내 처음으로 ‘동자승의 집’을 개원한다. 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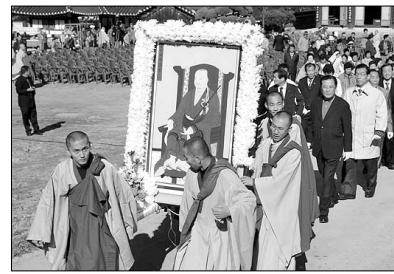


높이 15m에 이르는 호남 최대 크기의 용화사 미륵대불.

승의 집은 연건평 45평 2층 건물로 용화사에 거주하는 구오사미 10여명이 생활한다. 글·사진/담양=이준엽 기자

도선국사 추모예술제

영암 도갑사, 5천여명 동참



비보풍수의 시조로 불리는 도선국사의 뜻을 기리는 문화예술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11월 12일)도선 국사 탄신 1179주년을 맞아 '제1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를 경내 일원에서 개최했다.

도선국사 영정 이운(사진) 및 다례로 시작된 이번 예술제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과 각 사암 스님 박준영 전남 도지사, 유선호 국회의원, 김일태 영암군수 등 지역 기관장, 지역 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 법요식에서 천운 스님은 법어를 통

해 “넘치는 것은 떨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 비보풍수이다”며 “인생살이에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실천행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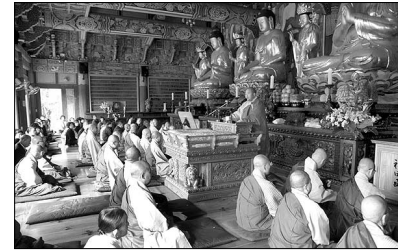
주지 월우 스님도 인사말에서 “도선국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주창했다”며 “천년을 이어온 도선국사의 사상과 뜻을 다시 새기고 널리 펴고자 예술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사암에서 도선국사 영정을 모셔오는 이운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선인들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뜻을 받들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문화예술제에는 종범 스님 초청 특별강연회와 동국대 박무를 교수의 ‘생활풍수’ 강연, 법우 스님의 살풀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영암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무성영화 상영이 이어졌다.

이준엽 기자

금산사 개산 1407주년 기념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은 11월 10일 개산 1407주년을 맞아 대적광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사암 스님과 수행단체장,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주지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미륵심선법을 행

하는 그 자리가 곧 미륵정토이다”며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개산조 진표유물사가 펼친 법상종풍을 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사진).

법회에 앞서 본, 말사 스님들은 조사전에서 역대조사에 헌다례를 올리고 부도전을 참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미륵전에서 법화립보살, 대묘상보살 복원불사의 원단 회향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불일청년회 창립 27주년 기념법회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이승동)는 11월 11일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창립 27주년 기념법회 및 원각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32대 이승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일청년회는 지난 27년간 포교는 물론 불교의 대 사회활동에 정열을 쏟았다”며 “청년불자의 등대가 되어 항상 정진하는 청년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원각의 밤에는 불일청년회원들이 준비한 각종 공연과 통기타 가수 주권기 씨 초청 공연이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法玄



자기의 옛거울 하나가 시방세계를 고요히 비출 뿐 옛거울에는 분별심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데서 참구하는 화두를 바르게 깨치면 마음눈이 열려서 자기의 옛거울을 참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니 법부가 바로 성불하는 최상승 조사선의 도리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들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 법문 중에서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동 309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여시아문

어느 것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라는 임제 스님의 중지에 따라 어디에서나 분별이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